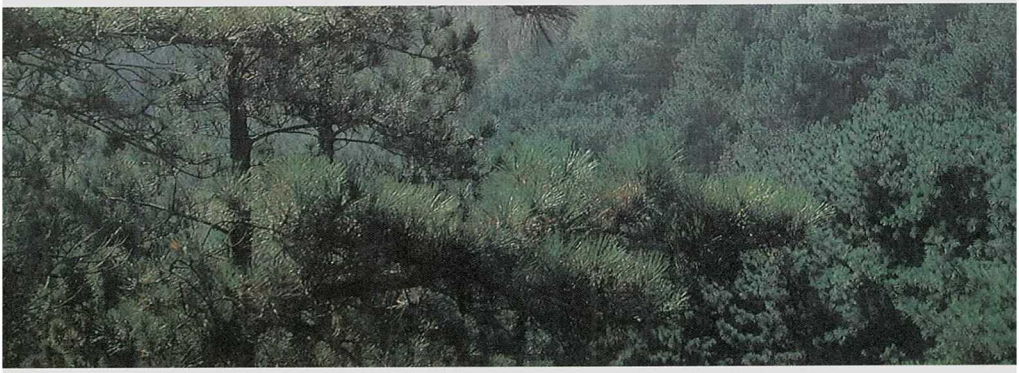

미에현 나바리시의 에코리조트 아까메의 숲

한그루녹색회에서는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의 숲관련 교육활동의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숲 체험교육과 관련된 일본의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청소년 숲체험 활동을 좀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일본의 아까메 숲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의 숲

아까메 숲의 면적은 약 200ha 정도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계절 자연관찰이나 국제야영캠프, 트러스트운동에 의하 토지매입, 도시에 거주하는 볼런티어들의 숯 굽기와 맹아갱신을 위한 벌채 등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산책로를 개설했으며, 지금도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아까메 숲에서 나온 목재를 가지고 몇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산책로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설, 경사가 급한 산책로의 편책, 볼런티어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작은 통나무집, 톰소여의 오두막,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목책, 숯가마, 통나무로 만든 전망대 등 누구나 참여하여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맹아력을 이용한 숲 갱신과정에서 얻어진 산물을 이용하여 볼런티어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모든 시설들이 숲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메 숲은 볼런티어로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주변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어린이나 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숲을 지켜나가는 선진적인 모습인 것이다.